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거짓말

김 경 회*

연세대 아동학과

본 논문은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거짓말을 도덕적 패러다임으로 제안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도덕성의 실체를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시도된 문헌 연구이다.

이 논문에서는 도덕성에 관한 Kohlberg의 인지발달 이론과 그의 수정이론, Hoffman의 사회화이론 및 이 두 이론의 통합 시도, 그리고 사회적 거짓말의 인지적, 사회 인지적 측면에서 접근된 이론 및 연구들이 언급되고 논의되었다. 이를 토대로 연구 문제점과 과제가 제안되었다.

사회적 거짓말은 일상생활에서 “선의의 거짓말”과 동일시 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부모, 교사, 임상가들은 거짓말을 부정적으로 보고, 정직을 격려하고 있다. 학문적으로 도덕성에 관한 이론들은 정직과 거짓말의 초점을 맞추어 강조하고 있으나, Alston(1980), 그리고 Vidoni, Fleming과 Mintz(1983)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직과 거짓말의 요인은 발달심리학자들에게는 무시되어 온 듯한 경향이 있다(Bandura, 1986; Freud, 1940; Kohlberg, 1969; Piaget, 1932).

사회적 거짓말의 준거로서 정직, 거짓말과 관련된 개념의 발달에 관해서는 대인지각(Barenboim, 1981), 도덕추리(Kohlberg, 1976; Piaget, 1932)등 대

인관계 사태에서 다루어져 왔다. Lamborn, Fisher와 Pipp(1994)는 그들 연구에서 정직과 친절은 건설적 비판이나 사회적 거짓말 또는 질투 섞인 진실과 같은 복잡한 수준으로 교차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아동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경희, 1999)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경희, 2000)에서도 개인적 갈등 사태에서는 “정직”을, 사회적 갈등사태에서는 “거짓말”을 해결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사회적 거짓말을 사회적 기능을 갖는 도덕적 패러다임으로 제안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도덕성의 실체를 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 mkhkim@yonsei.ac.kr

즉, 1) 도덕성에 관한 이론 및 관련 연구를 개관하고, 2) 인지적 측면과 사회인지적 측면에서 거짓말에 관한 이론적, 실제적 배경을 다루어서,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도덕성을 이해하고 사회적 거짓말의 기능을 확인할 것이다.

1. 도덕발달의 이론과 연구

도덕에 관한 많은 견해가 있으나, 도덕을 흔히 내면적 의지와 양심의 면과 집단과 사회의 질서를 지켜야 할 의무나 책임의 면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도덕의 정의는 도덕 발달과정 에 대한 접근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면 중에 어느 쪽이 더 강조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도덕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철학적 고찰이 있었으나 본 고에서는 심리학적인 접근에 국한시킨다. 따라서 Kohlberg의 인지이론과 Hoffman의 사회화 이론, 그리고 이 두 이론을 절충시키려는 최근의 시도도 함께 다루기로 한다.

1) Kohlberg 이론(인지발달적 이론)

Kohlberg에 따르면, 도덕발달에서 내면화가 증가한다는 것은 성숙을 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적 발달을 의미한다. Kohlberg의 이론 즉, 인지발달이론에서 자연적 도덕발달은 “도덕적 적합성”(moral adequacy, Kohlberg, 1971, p.213)에 필요한 것이며, 심오한(profound) 도덕적 판단은 내적(internal) 도덕지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미숙한 도덕적 판단은 Kohlberg의 단계 1에서 가장 잘 예시되고 있다. 단계 1(복종과 벌 지향단계)은 어린 아동들이 도덕 개념을 구체적인 장소나 사건으로 구체화하는 자연적 경향을 나타낸다. 즉, 단계 1의 도덕성은 도덕적 권위 또는 인간 생활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물리적 이해이다(Kohlberg, 1984, p.624). 지각적으로 어떤 상황의 인상적 특징(예: 크기, 대상, 물리적 결과)은 아동의 주의나 상상의 중심이 되는 경향이 있

다. 권위에 복종하고, 생명을 구하고, 약속을 지키거나, 또는 규범적 도덕적 규칙을 위한 이유에 대해서 아동의 판단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상적 특징이다.

Kohlberg의 단계 2(소박한 자기중심적 단계)는 심리적 조망과 상호 관련된 물리적 외양은 아니지만, 이 단계는 또한 기초적인 도덕적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피상적인 것이 특징이다. Snarey(1985)는 단계 2를 5개의 문화에서 이끌어낸 결과를 토대로 실제적 또는 자기 중심적(egoistic) 도구적 사고의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단계 2의 판단에서 표현된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적(empathic)관심은 실제적 욕구나 원망이라는 것이다(Eisenberg, Boehnke, Silbereisen, & Schuler, 1985). 단계 3(“착한 아이” 지향 단계)과 단계 4(복종과 사회질서 지향 단계)에서 도덕적 판단 성숙은 도덕성의 고유한 이해를 표상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계 3은 성숙한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는 상호성(mutuality)이나 신뢰(trust)에 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

Kohlberg의 도덕판단 연구의 기초가 되고 있는 Piaget의 연구는 “사실로서의 상호관계”(reciprocity as a fact)로부터 “이상으로서의 상호관계”(reciprocity as an ideal)인 “기대의 상호성”(mutuality as expectation)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갖는다(Piaget, 1932, 1965, pp.323-324). Selman(1980)에 의하면 단계 3은 아동의 교환적 심리적 조망을 나타내는 단계 2의 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교환적 심리적 조망은 상호적이고 동등한 대인적 이해를 갖게 된다(Feffer, 1970, p.39). 그러나 Gibbs(1985)와 Losco(1986)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단계 3 도덕관은 도덕적-인지적 적합성, 곧 대면 집단(face to face group)보다 훨씬 복잡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개인들의 상호성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다. 즉 협동과 사회적 기대를 증진시키고 불일치와 무질서를 피할 수 있는 조절(regulation)행동을 하게 된다(Kohlberg, 1984, p.632).

도덕성에서 일반적으로 연령과 관계된 진행 경향, 곧 피상적(물리적, 이기적, 도구적)인 것에서 보다 고유하고 심오한 방향(즉, 상호신뢰, 돌봄, 일

반적으로 수용된 표준이나 필요조건)은 많은 종단적 연구 및 문화비교연구에서 발견되고 있다(예: Colby, Kohlberg, Gibbs, & Lieberman, 1983; Page, 1981; Walker, 1989). 27개국에서 Kohlberg의 도덕판단 연구를 개관한 가운데, Snarey(1985)는 Kohlberg의 단계 1부터 단계 4는 광범위한 문화집단에서 나타난다고 결론짓고 있다.

단계 1에서부터 단계 3까지는 공정한 분배와 합법적 권위에 관한 아동의 추리 연구(Damon, 1977), 그리고 Youniss(1980)의 친구개념에 관한 연구, Selman(1980)의 대인적 이해에 관한 연구, 그리고 Eisenberg(1982)의 친사회적 추리연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도덕성에서 나타나는 피상적인 데에서 심오한 판단으로의 진행은 사회적 인지 발달의 다른 영역에서도 유사한 연령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낸다. 물리적 또는 이기주의적 반응으로부터 보다 상호적 또는 체계 반응으로의 변화는 자아 발달 연구(Loevinger & Wessler, 1970), 자아개념 발달(Harter, 1983; Montemayor & Eizen, 1970)에서 명백하다.

인지발달이론은 내적 도덕성이 구조적 과정, 곧 탈중심성(decentration)에 기여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실제, 도덕적 단계는 상황적 조망의 진행적 동등성 또는 상호관계의 결과라는 것이다(Koplan, 1989; Grueich, 1982; Leahy, 1983. p.323). Flavell(1985)은 현실을 이해하는 것을 인지적-구조적 과정의 특수형태인 탈중심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Case(1985)는 아동의 문제해결, 탐색 등의 비사회적 활동과 모방, 사회적 갈등, 사회적 협동 등과 같은 사회적 활동에서 Damon(1977)이 지적한 바 있는 "탈중심성과 유사한 과정"(decentration-like processes)이 있음을 알았다. 이 유사한 과정은 아동의 기억 발달에서(Chapman & Lindenberger, 1989; Pascual-Leone, 1970, 1987), 그리고 사회적 갈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탈중심성은 물리적, 인지적 발달에서도 현저하다는 것도 보고되고 있다(Doise, Mugny, 1984). 이와 같이 상황적 측면 또는 조망의 상호관계는 추론적 또는 본질적(intrinsic)이해를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사회적 인과 추리에 관한 연구 개관을 통해서 Miller와 Aloise(1989)는 어린 아동들도 많은 행동을 내적 심리적 원인에 귀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이를 기초로 Miller와 Aloise는 어린 아동들의 사회적 인과적 추리의 특징을 "외적"(external)이라고 보는 견해를 부인했다. "외적"이라는 말은 아동의 사회적 또는 도덕적 판단에서 분명한 피상성 경향에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Miller와 Aloise는 어린 아동들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심리적 상태 또는 심리적 동기에 관한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Nunner-Winkler & Sodian, 1988, p.268). 반면에 아동기 아동이 물리적 사태와 같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덕적 문제를 해결할 때 동기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고 상호연관을 시키는 경향은 다양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중심적 능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Feffer(1970)는 탈중심성을 물리적 또는 사회적 차원간의 협동과 상호적 교정(correction)이라고 정의하여 탈중심성을 상호성과 동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Damon(1977)은 상호성을 동등성과 관련된 불균형(imbalance)을 균형상태로 교정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p. 284). Piaget(1932/1965)는 동등성과 상호성은 또래들이 타인의 관점에 직면하고 이에 반응하면서 사회적 탈중심성을 발달시킬 때, 자연적으로 생긴다고 논의했다. 상호성은 Kohlberg의 단계 2와 3에 나타나서 단계 4로 확장된다. Kohlberg(1984)는 도덕적 단계들은 계속적이고 상호적인 형태를 나타낸다고 시사했다(p.73). Kohlberg(1984, p.41)에 의하면, 동등성과 상호성 개념은 정의감(sentiments of justice)의 구성요인이다. Kohlberg는 탈중심성 개념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탈중심성은 인지적 구조화와 균형과정을 이루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인지발달의 맥락에서 탈중심성에 관한 연구들은 동등성과 상호성이 중요한 동기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요약하면 아동의 도덕적 판단은 피상적, 곧 물리적, 이기주의적-도구적인 데에서 대인관계에 대

한 심리적 의미와 기능적 기초를 알게되는 심오하고 성숙된 수준으로 진행된다. 도덕판단 단계의 진행적 구조는 사회적 역할수행 기회와 같은 환경의 자극들을 조정하고, 도덕적 동기의 인지적 기초가 되는 동등성, 상호성, 곧 정의를 확립하는 탈중심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2) Kohlberg 이론에 대한 수정이론

Gibbs는 전통적인 Kohlberg이론에 기초하면서 이를 수정했다. Gibbs의 이론은 Kohlberg 이론에서의 내면화 문제, 성숙의 문제, 문화요인의 문제에 근거하여 구축되었다. Gibbs(1991)는 두 가지 목적에서 신 Kohlberg의 견해를 세련시켰다. 첫째, 인지발달이론에서 도덕 발달의 구조적(constructive)측면을 분명히 하여서 Kohlberg 저술에서 나타난 내적 모순을 알아내고, 둘째, 전통적 Kohlberg이론에서 도덕 판단의 성숙 곧 후기 인습적 또는 원칙적 단계인 5(계약 및 법률 존중 단계), 6단계(양심 및 윤리 지향 단계)를 비판함으로써 단계 3, 4의 명칭을 정당화(강화)하려고 하였다.

Dewey와 Tufts(1908), McDougall(1908)등의 20세기의 저서들을 개관하여 Kohlberg(1984)는 처음 두 단계를 사회적 인습의 이해와 수용(전 인습 수준)으로서 특징짓고 있으며, 단계 3과 4는 사회적 규칙, 기대, 또는 인습이기 때문에 사회의 인습 또는 권위의 규칙과 기대를 나타내며(인습적 수준, p.172), 단계 5와 6은 규칙들의 기초가 되는 일반적 도덕 원리를 공식화하고 수용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후기 인습 수준, p.173). 후기 인습 수준은 기초가 되는 도덕원리를 인식하고 도덕적 원리가 자기 선택적이고 사회적 인정 또는 비난에 관계없기 때문에 “내적”(internal)이라고 생각되므로, Kohlberg의 전인습적-인습적-후기인습적인 3분법은 “자연적”(자연주의적) 도덕 발달과정에서 내면화의 구조 혼란과 도덕 판단 성숙에 대한 잘못된 진술이라고 Gibbs는 주장하고 있다.

Kohlberg는 도덕판단 발달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기 모순적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Kohlberg가 언급했던 “자연적”(natural) 도덕발달은 낮은 수준에 있는 외적(external) 문화적 규범이 직접 내면화된 것으로 정의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전인습적” 단계에서 인습적 단계로의 변화를 설명할 때 이를 외적, 곧 타인의 규칙과 기대를 내면화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분명한 모순은 Kohlberg가 도덕발달에서 간접적(indirect) 내면화 모델을 없애버리려는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단계에서 단계로의 특수한 변화를 설명할 때, Kohlberg는 역할 수용 기회는 개인의 발달 수준에 관련된 적절한 도덕 판단 “짜”(match)를 제공할 경우에만 발달적으로 자극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Hoffman(1988)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적절한 짜 과정은 “짜”이 외적 대상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현적 도덕 내면화개념을 내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내면화는 아동 자신이 처음부터 외적 도덕성을 적극적으로 구성하거나 또는 재구성하는 경우, 전인습 수준에서 인습수준으로 발달한다는 Kohlberg의 저술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구조는 내면화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진술이라는 것이다. “내면화” 언급 뿐 아니라 도덕 판단 성숙에 대한 Kohlberg의 해석은 전인습적-인습적-후기 인습적이란 3분법에서도 내포되어 있다.

Gibbs(1991)는 도덕판단을 타당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Kohlberg의 이러한 3분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Gibbs의 주장에 의하면, 소위 인습적이라 불리우는 수준은 이미 도덕 판단의 성숙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즉 후기 인습적 또는 윤리적 수준을 도덕 판단 성숙의 유일한 저장소나 또는 표준단계 계열 중 하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철학적 사고는 내현적이고 규범적인 윤리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Kohlberg는 단계 3과 4의 도덕 판단의 성숙된 측면을 확인한 바 있다(1984). 흥미있는 것은 최근 판(version)에서는 단계 3과 4에 Kohlberg가 1950년대에 단계 5

와 6이라고 명명했던 단계들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단계 5와 6의 예로 고등학생이 “삶의 도덕적 가치는 복종이나 권위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개념화한 것, 이것은 원리적으로 들림).

Kohlberg와 Kramer(1969)는 1970년대 이후 종단적 연구에서 대학생이 된 고등학생의 표집 중 20% 이상이 단계가 후퇴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토대로 Kohlberg는 원리적으로 들리는(principle-sounding) 도덕적 판단은 단계 3과 4의 실제적인 지시자(indicative)라고 재분류했다. 따라서 Kohlberg(1984)는 그의 이론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원리적으로 들리는 도덕적 관념성(ideality)간의 모순은 단계 3과 4에 포함되며, 이러한 단계들의 전통적 명명은 “인습적”(conventional)인 것으로 새롭게 기술했다.

Kohlberg(1984)는 대학원 학생들을 다수 포함한 종단적 연구 대상자들 가운데 다만 13%만이 단계 4와 5에 도달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와 유사하게 Snarey(1985)는 비교문화적 개관연구에서 특별한 표집 내에서 단계 5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한 바 있다. Snarey는 단계 5는 Kant, Rawls, 및 기타 서양 철학자들의 개인주의적 철학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단계 5는 “불완전한”(incomplete) 것이라고 결론지었다(p.228). Snarey는 단계 5의 특성화는 비서양 사회를 대상으로 “집단적”(collective)인 후기 인습적 원리로 보충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Gibbs(1991)에 의하면 Kohlberg의 단계 5는 문화적 요인 때문에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철학적 수준을 도덕판단 성숙으로 잘못 나타내기 때문에 도덕판단 성숙에 대해서 부적절한 지시자라고 보고 있다. 즉, 단계 5는 표준적인 발달단계가 아니라, 인간발달의 “실존적”(existential) 국면에 대한 철학적 지시자라고 보는 것이다.

후기 인습적 수준의 성숙된 또는 본질적 도덕성을 언급한 Kohlberg에 대한 비판은 Turiel(1983, 1989)에 의한 것으로, 그는 어린 아동들도 사회적 인습에 따라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과, 특히 관계가 없고 고유한 도덕성의 특징을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성과 사회

적 인습에 대한 Turiel의 구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Gibbs의 견해이다. 즉, 도덕의 영역은 사회적 인습의 문제나 개인적 선택의 문제와는 개념적으로 다른 영역이며, 어린 아동조차도 이들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덕적 판단과 인습적 판단은 질적으로 서로 다른 사회적 상호작용과 사회 경험들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각각 독립된 발달노선을 따른다는 것이다. Turiel은 사회 인습 추론을 7단계(6-7세, 8-9세, 10-11세, 12-13세, 14-16세, 17-18세, 18-25세)로 구분하여 제안한 바 있다. 1980년대 이전에 Kohlberg의 도덕판단 발달과 성숙 단계들이 문화비교적으로 확인된 바 있으나, 그 이후로는 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Gibbs는 도덕판단에 있어 문화요인을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문화요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될 것임).

3) Hoffman의 이론(사회화 이론)

도덕에 대한 Hoffman의 사회화 이론은 아동이 어떻게 외적인 사회적 규범을 수용하게 되는지, 즉 어떻게 문화가 변화하고 아동이 내적으로 지향된 도덕적 동기를 획득하는지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Hoffman의 작업은 정신분석학, 사회학습, 및 기타 사회화이론들의 여러 가지 특징을 세련시키고 혼합한 포괄적 이론이다. Hoffman(1983)은 도덕발달에서 외적 지향에서 내적 지향으로의 변화를 내면화로 설명하고 있다. 원래 외적 또는 사회에 기초한 도덕 규범의 내면화는 아동 행위의 동기에서 외적에서부터 자아에 강제된 성향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사회적 규범은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성질을 가진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회의 도덕적 규범을 외적이고 강제적으로 부과된 압력으로 보고 있지 않다. 대신에 내면화의 부분으로서 “규범의 인지적이고 동기적 성질”은 보통 자신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경험된다(p.244).

Hoffman에 의하면 도덕 내면화의 증추적 수단은

훈육(discipline)조건이다. 훈육조건 가운데 귀납적 훈육은 Kohlberg에게는 “역할수행 기회”(role-taking opportunity)의 한 유형인데 비해서, Hoffman에게는 아동의 도덕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이 내면화된 도덕적 규범을 위한 “동기적 힘”(motive force)을 얻게 되는 것은 부모 아동의 상호작용 측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훈육조건”을 통해서이다. 충분한 동기 없이는 내면화된 도덕적 규범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게 되었다. 도덕적 내면화를 가능케 하는 것에 덧붙여, 귀납적 훈육은 감정이입의 수용으로 도덕적 동기에 기여한다.

귀납(induction)은 아동의 주의를 희생자나 피해자의 고통이나 절망으로 돌리게 하기 때문에, 귀납은 타인에 대한 대리적 감정적 반응인 아동의 감정이입 능력 안에 동기적 출처를 갖는다(p.252). Hoffman에 의하면, 귀납적 교육에 포함된 친사회적 인지는 감정 이입적 효과와 그것의 파생물인 감정이입에 기초한 죄책감을 가진 동기적 속성을 얻게 된다. 내면화된 도덕성 과정에서 감정이입과 예상되는 죄책감은 도덕적 갈등과 유혹의 상황에서 활성화됨에 따라서, 친사회적 인지는 이기주의적 동기나 또는 공격적 충동을 극복하려는 충분한 동기력을 갖게 되는데, 이 결과가 도덕적 행위이다. 모든 아동들이 귀납적 훈육(inductive discipline)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덕적 내면화는 보편적이지 않다는 것이 Hoffman의 주장이다.

지배적인 부모 훈육방식은 권위-독단적(power-assertive) 훈육방식인데, 이는 외적으로 지향된 도덕성의 선행조건으로 내적 지향된 도덕성의 조건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권위 독단적 훈육방식은 부모나 아동간의 갈등이 특징으로, 부모는 위협적 존재로서 귀납은 결여되었거나 수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동은 부모의 위협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한다(Baumrind, 1989, p.361). 이러한 권위-독단적 훈육방식은 감정이입과 도덕적 동기를 일으키지 못한다. Hoffman의 견해에 따르면 인지발달이란 귀납적 훈육뿐 아니라 감정이입에 기초한다. 그러나 동기적

힘이 없이도, 인지가 발달하면 감정에 기초한 도덕적 동기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Hoffman, 1973).

4) 통합을 위한 시도

도덕성에 관한 Kohlberg, Hoffman의 이론은 본질적으로 보완적이며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Kohlberg의 인지적-구조적 과정과 내면화 과정은 “내적” 도덕 지향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하며, 또 Hoffman의 동등성, 상호성에 기초한 정의와 감정이입, 감정이입에 기초한 죄책감과 관련된 정서는 도덕적 행동의 동기에 기여한다.

Kohlberg와 Hoffman의 해석은 내적 도덕적 지향의 측면에서 다를 수 있다. Hoffman의 도덕 내면화 이론은 Kohlberg의 인지 발달적 이론이 다루지 못한 감정이입에 기초한 죄책감과 귀납적 훈육방식 간의 특수한 경험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인지적 발달과 내면화는 죄책감 측면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는 자아 귀인적, 감정이입에 기초한 것이다. 내적-외적 변화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Peterson, Peterson,과 Seeto(1983)의 거짓말에 대한 개념 발달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사회적 거짓말에 관한 발달적 경향은 인지적 발달 기대와 일치되었다. “거짓말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길까?”라고 질문했을 때, 5세 아동의 10%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게 될 것”이라는 최저한의 반응을 포함한 신뢰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응답한데 비해서 11세 아동의 98%가 불신이라고 대답했다.

Peterso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결과의 또 다른 경향은 사회화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즉 거짓말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라는 질문에 5세 아동 가운데 죄책감을 느낀다는 아동은 하나도 없는데 비해서 11세 아동의 22%는 죄책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반대되는 경향으로 5세 아동 중 8%, 11세 아동의 28%는 외적이며 부정적인 제재를 언급했다(예: 하느님이 화내실 거예요, “병이 날 거예요”등). 외적이고 부정적인 제재를 언급하는 것은 인지적 피상성과 도덕적 내면화의 부재

를 반영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김경희(1997)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는 '죄책감' 개념이 없음을 발견했는데, 이 결과는 Peterso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다. 내적-외적 변화란 두 가지 측면을 포함시킨 또 다른 연구로는 Hoffman과 Saltzstein(1967)의 도덕적 내면화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내적 도덕성은 거짓말 한데 대한 근심보다는 신뢰를 잃게 될 것을 걱정하는 것과 같은 즉, 외적인 것 보다 내적 근거로 사용되는 도덕적 추리로 평가되었다.

감정이입에 기초한 죄책감 반응이 사회화 과정에서 설명될 수 있지만, 대인관계에서 기초가 되는 신뢰를 언급하는 사상(event)은 주로 인지 발달적 과정을 반영한다. 내적, 외적으로 지향된 도덕성이 훈육을 받은 사회화의 여러 가지 기술의 선택적 산물이며 따라서 외적으로 지향된 아동은 부모가 귀납적 훈육 경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내적 지향을 획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Hoffman의 주장은 내적 도덕성이 주로 자아 귀인적 이고, 감정이입에 기초한 죄책감을 설명할 때 타당하다.

내적 도덕 정향(orientation)의 인지 발달적 측면과 사회화 측면은 여러 문화와 역사적 맥락에서 다른 역할을 한다. 인지적 발달은 모든 문화권에서 생기는 한, 사회적 탈중심성은 전통적 사회의 감정적 편견을 감소시킨다. 반대로, 현대 사회에서 귀납적 훈육방식이 사용되는 한, 감정이입이 정착된 도덕성 내면화는 개인주의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적 도덕성의 인지적 발달과 사회화 측면이 타당하게 변별될 수 있는 한, 인지 발달적 측면이 문화비교적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Snarey 1985).

Hoffman(1983)은 자기의 도덕 내면화 이론은 타인의 욕구와 자신의 욕구가 빈번한 갈등을 일으키는 "개인주의적"사회에서 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달리 표현하면, 도덕적 내면화는 이러한 갈등이 덜 빈번한 단순하고,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덜 필요한 것일 것이다(p.271). 이와 유사하게 Maccoby와 Martin(1983)은 추리 지향적 아동

양육과 자기조절(self-regulation)은 동질적이고도 외적제재가 강한 산업화되지 않은 사회에서보다는 복잡한 산업화된 사회에서 기능적으로 요구된다고 논의했다.

Gibbs(1991)가 논의한 바와 같이 Kohlberg와 Hoffman의 이론은 도덕적 동기와 발달을 이해하는데 보완적인 공헌을 했지만,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즉 Kohlberg의 이론은 성숙한 도덕적 의미를 발달시켜 가는 것과, 평등과 상호성에 의해서 도덕적 동기를 설명하고 있으며, Hoffman의 이론은 사회의 도덕 규범 전달을 내면화를 통한 감정이입적 감정(예 : 죄의식)을 도덕적 동기의 기초로 보고 있다. 따라서 Kohlberg의 도덕의 인지적 측면과 Hoffman의 정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때에만 비로소 도덕성과 도덕 발달의 범위와 다양성을 더욱 훌륭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Gibbs는 결론짓고 있다.

이 외에 Moshman(1995)은 도덕적 합리성을 논의하는 가운데 4가지 수준을 제안하였다. 수준 1은 3세 이전까지의 절대적 합리성 수준으로, 무언의 비체계적, 불안정한 단계이며, 수준 2는 외현적(explicit) 합리성 수준으로 3세 이후에 발달되며,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학습되거나, 여러 가지 규칙과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도덕적 균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준 3은 외현적 윤리 수준으로 청년기에 시작되며 윤리적 체계와 원리를 따르며 수준 2보다 광범위하고 융통성 있으며 안정되어 있다. 수준 4는 외현적 상위 윤리 수준으로 가장 높은 단계로 도덕적 합리성과 정당화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직 논의의 소지가 많은 단계이다.

2. 사회적 거짓말에 대한 이론과 연구

1) 인지적 측면에서의 거짓말

거짓말에 대한 인지에서 발달변화는 부모나 교사들의 생각과 태도에 달려있다. 정적에 대해서

대부분 교육적 혼용적 개입은 아동과 성인들이 “거짓말”이나 “진실”의 개념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가정해 왔다. 그러나 70년 전 Piaget는 이에 의문을 제기하여, 6세부터 12세 아동 100여명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포함한 도덕적 추리에 관한 10개의 상황을 알아보았다.

Piaget는 질문내용을 분석한 결과 8세를 전후하여 도덕추리에 두 가지 뚜렷한 양상을 보이는 단계로 나눌 수 있음을 가정했다. 발달적으로 초기 양상은 “도덕적 객관성”으로 명명하여, 거짓말이나 나쁜 행동은 저주나, 잘못, 또는 벌받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곧, 직관적이고 외적 사건과 제재를 강조하는 특징을 갖는다. 두 번째 양상은 첫 번째 양상과 대조되는 것으로, “주관적”양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거짓말에 대한 정의나 평가, 일반적 생각에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생활에서 거짓말은 빈도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Piaget는 거짓말은 그가 연구한 도덕성의 모든 상황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논의했다.

방법론적으로 Piaget가 질적 서술만을 고집해온 데 대해서 의도에 관한 최근에 행해진 수많은 체계적 연구들은 양적 기술과 통계적 분석이 가능한 표준화된 검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도덕추리의 의도성 영역에서 객관적 추리에서 주관적 추리로 변하는 속도가 최근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도 제기되었다(Keasey, 1977). 왜냐하면 거짓말에 관한 연구영역에서 Piaget가 1920년대 스위스 아동을 대상으로 평가한 것은 오늘날 가속되거나 감속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며, TV등에 노출된 현대 아동들은 1920년경의 도래에 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갈등을 일으키는 성인관점에도 노출되었다고 본다면, 과도한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에 노출된 것은 거짓말에 대한 현대 아동의 이해발달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Piaget는 여러 가지 종류의 거짓에 대한 정의(definition)와 평가에서 연령차를 발견했다. 특히 어린 아동들은 더 나이든 아동들 보다 거짓말을 맹세하는 것, 잘못된 추

측을 하는 것, 허풍(과장)떠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어린 아동들은 거짓된 진술에 대해서 의도적이기 보다는 비의도적인 것으로 나타냈다.

Peterson, Peterson, 과 Seeto(1983)는 오스트레일리아의 5, 8, 9, 11세 아동과 성인 200(각 집단 남녀 20명씩 40명)을 대상으로 10개 Video stories를 보여 주어 거짓말을 연구했다. 이 연구에서는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는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항상 나쁜지, 아니면 때로 거짓말이 좋은 것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나?”, 그리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 등의 질문에서 얻는 자료를 다음과 같은 Piaget의 분류에 따라 평정했다. 거짓된 진술을 정의할 때 연령차이를 나타내는 Piaget의 결과에는 4유형이 있다. 이 4가지 유형은 ①과장, ②맹세(서약), ③연령추측.나이 든 아동이 어린 아동의 나이를 짐작할 때 실제 나이보다 세 살 적게 추측한 경우, ④방향추측.길 잃은 어른이 아이에게 길을 물었을 때, 그 아동이 잘 모르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길(잘못된 길)을 말해서, 어른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경우이다.

세 가지 의도적 거짓말은 ⑤자기 방어적 거짓말-중립적 결과(아동이 우연히 우유를 바닥에 쏟고 어머니에게 개가 쏟았다고 말하는 경우), ⑥자기 방어적 거짓말/처벌적 결과(한 아동이 잉크를 침대 덮개에 었지르고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했을 때, 어머니는 그것을 믿지 않고 아동을 꾸짖고 매를 때리는 것), ⑦자기 보호적 거짓말/믿는 경우(아동이 말했을 때 어머니는 그것을 믿고 벌을 주지 않는 것)이다.

다음의 세 가지 경우들은 욕구에 따라 부분적으로 동기를 가진 거짓말의 개념과 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⑧선의의 거짓말(white lie)-아동이 다른 아동에게 새로 깎은 머리스타일이 어때냐고 물을 때, 친구 아동은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아 보인다고 말하는 것, ⑨실제적인 농담(joke)-아동이 친구의 배드민턴 공을 숨겼는데, 친구가 그것을 찾으려할 때 갑자기 웃으면서 그 공을 친구 앞에 내미는 것, ⑩이타주의

적 거짓말-개구쟁이가 한 소녀에게 놀래줄 꼬마아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그 소녀는 꼬마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고있지만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Peterson과 그의 동료들의 연령비교 결과, 맹세하는 것은 아동 집단보다 성인 집단에게서 덜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9세 아동들이 5세와 11세 아동들 보다 더 낮은 평정을 나타냈다. 과장은 성인 집단이 아동집단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5세 보다 9세 아동이 더 나쁜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적 농담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차이는 9세 아동과 성인에게서 더 높게 평가되었다. 위의 세 가지 자기 보호적 거짓말은 아동자신보다 성인집단에서 의미 있게 덜 나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타적 거짓말은 5세 집단에게서 의미 있게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8세 아동과 9세 아동은 이타적 거짓말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11세 아동이나 성인보다 낮게 나타났다.

Peterso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 결과는 거짓말은 8세 경에 사라진다는 Piaget의 주장을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11세 아동의 95%가 과장을 거짓으로 보고, 성인의 3%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 성인은 아동에 비해서 의도적이고 이타적으로 동기화 된 속임을 거짓말과 동일시하지 않았다. 이는 거짓말에 대한 성숙한 피험자의 정의는 아동에 비해서 좋은 의도와 같은 주관적 단서에 더 의존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들이 모두 거짓말을 “진술의 형태로 나타나는 의도적으로 속이는 메시지”라고 한, 현대 도덕 철학자들의 정의와는 다르다. 어린 아동과 같이, 많은 성인들은 추측과 같은 비의도적 거짓말을 사용한다.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17세기 신학자인 Hugo Grotius가 진실이 없는 개인의 의도적 속임을 거짓말이라고 보는 협의의 개념정의에 동의하고 있다 (Bok, 1978, p.14). Emanuel Kant는 일찍이 의도적인 이타적 거짓말은 이기적 속임 행위 못지 않게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논의했다. 그러나 Peterso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결과에서 모든 연령집단에

서 Kant입장과 같은 견해는 없었다. Thomas Aquinas는 악의 있는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즐겁게 하려는 의도로 하는 익살스러운 거짓말보다 더 비난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가졌는데, Peterson과 그의 동료들은 모든 연령집단은 선의의 거짓말, 이타적 거짓말, 그리고 실제적인 농담보다는 별이나 비난을 피하려는 의도로 하는 거짓말은 더 나쁘다고 판단하였다.

Piaget는 8세 이하 아동은 거짓말을 거짓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짓말의 진술, 곧 거짓말 자체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1932/65, p.150). 또 어린 아동들도 과장이 사리사욕에서 나온 속임보다 더 낫다고 평가했다. Peterso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서 과장은 Piaget의 “소만큼 큰 개”라는 진술보다 객관적으로 있을 법하지 하지 않는 “코끼리 만한 병아리”라는 과장을 연구자료로 사용했었다. 5세 아동들은 별받을 거짓말이 성인이 생각하는 자기 방어적 거짓말과 마찬가지로 나쁘다고 판단한 사실은 별을 아동들의 거짓말의 중심준거로 본 Piaget의 제안과 모순된다. 한편, 거짓말에 대한 일반적 면접 질문에 대한 아동의 대답은 Piaget가 시사한 바와 같이 거짓말은 다만 권위의 금지 때문에 항상 나쁘다고 보는 객관주의로부터 시작되어, 상호신뢰, 공개적 의사소통과 민주적으로 생각하는 발달을 보였다.

Peterso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는 Piaget가 주장한 것 보다 발달변화가 보다 점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9세 아동의 1/4과 11세 아동의 28%가 처벌적 제재(punitive sanction)를 거짓말하지 않는 유일한 정당화의 사유로 보았으며, 또 거짓말은 동기나 상황을 불문하고 항상 나쁘다고 생각했다. 도덕적 평가와 거짓말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Piaget의 결과와 Peterso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 결과의 차이는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대차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또 방법론적으로 Piaget가 사용한 것은 질적인 방법인데 비해서 Peterson과 그의 동료들의 경우에는 척도를 사용한 양적인 방법이라는 차이에도 부분적으로 기인한다고 간주된다.

2) 사회인지적 측면에서의 거짓말

사회적 도덕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것은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다 (Kurdek, 1978). Kohlberg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갈등에 대한 개인의 추리를 다루었고, 그후 몇몇 연구자들은 도덕 영역과 사회적 관습의 영역을 구별하였으며(Damon, 1977 ; Gilligan, 1977 ; Haan, 1978, Gilligan, Kohlberg, Lerner & Belensky, 1971; Selman, 1976; Youniss, 1975), 분배적 정의(Damon, 1977; Piaget, 1932), 친사회적 도덕적 갈등 추리(Eisenberg-Berg, 1976)등으로 사회적 도덕성을 연구했다. Eisenberg-Berg(1979)는 125명의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친사회적 도덕 판단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추리는 쾌락주의적이고, 상동적이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대인 지향적이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연령과 더불어 빈도가 감소한 반면에, 내면화된 가치를 반영하는 감정이입적 사고와 판단은 연령과 더불어 증가하였다.

Haan(1978)이 Kohlberg식의 도덕적 판단체계를 평가하는데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형식적 수준의 인지조작은 도덕적 추리의 기초원리로서 필요한 것이다. 산업화되지 않은 집단과 하류 집단은 도덕적으로 덜 성숙하며, 미국의 성인 여성은 남성보다 빈도에 있어 도덕적으로 덜 성숙하며 Kohlberg의 3단계에 “고착”되어 있고, 지적화(intellectualizing)와 방어적 자아과정은 높은 도덕 수준과 정적으로 연합되어 있다(Haan, Lerner & Kohlberg, 1976 ; Holstein, 1976). 즉, 사고에 있어서 형식적 조작 수준에 있으며, 산업화되고 합리적인 사회에서 살며, 방어적이며 지적화되고, 대인관계 및 사태적인 세부사항을 거부하는 남성의 도덕적 추리는 Kohlberg의 도덕체계에서 특히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인적 도덕성에 관한 Lamborn, Fischer와 Pipp(1994)의 연구에서 9세부터 20세에 이르는 113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 도덕적 개념 발달을 평가했다. 즉 사회적 상호관계에서 사회적 거짓말을 준거로 하여 정직과 친절의 발달적 순서

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자들이 발달시킨 “정직과 친절에 관한 이야기”를 도구로 사용한 결과에서 정직과 친절에 대해서 9세에서 12세 아동은 구체적 개념을, 13세에서 15세까지의 청소년은 단순한 추상적 관계를, 그리고 16세에서 20세까지의 청소년은 복잡한 추상적 관계를 나타냈다.

정직과 친절에 관련된 개념 발달에 대한 연구로 대인 지각 발달(Barenboim, 1981; Berndt & Berndt, 1975), 조망수용(Selman, 1980), 도덕추리(Kohlberg, 1976; Piaget, 1932), 대인관계 이해(Baldwin & Baldwin, 1970 ; Bussey, 1992 ; Youniss, 1980)를 들 수 있다. Baldwin과 Baldwin(1970)은 대인 관계에서 아동의 인지적 이해 발달을 다룬 연구에서 친절에 대한 아동의 개념 발달을 보고했다. 이 연구에서 유치원생, 2, 4, 6, 8학년 아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자들이 작성한 그림이 있는 10개의 이야기를 연구도구로 사용하였다. Baldwin과 Baldwin은 순수심리학적 입장에서 친절에 관한 직관이론(intuitive theory)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직관이론에 의하면, 친절은 적절한 상태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실에서 추론되는 동기이며, “의도적 행위” 만이 행위자의 특징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서 연령차는 있었으나,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Baldwin과 Baldwin은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성인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며 연령에 따라 친절 개념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결론짓고 있다.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친절 행동은 비의도적인데서 의도적인 특징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Peterson, Peterson과 Seeto(1983)는 200명의 5, 8, 9, 11세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거짓말에 대한 개념을 조사하였다. 거짓말의 정의는 연령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11세 아동은 신뢰와 공정에 의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한데 비해서, 이보다 어린 연령의 아동들은 권위와 벌의 제재에 지향되어 있으며, 성인들은 아동에 비해서 도덕적 평가에서 너그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Bussey(1992)는 유치원생(5세), 2학년(8세), 5학년(11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거짓 진술과 사실진술에 대한 정의, 도덕 수준 및 내적 평가 반응을 조사하였다. 이들 판단에 대한 4가지 요인인 진술의 허위성, 진술내용, 진술을 믿는지 여부, 그리고 진술이 벌을 받을지의 여부도 조사되었다. 연구결과에서 2, 5학년 아동들은 모든 진술을 거의 정확하게 평가한 반면, 유치원생은 거짓 진술과 사실 진술에 각각 70% 정도를 옳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 집단에서 거짓말은 사실 진술보다 더 나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유치원생은 2, 5학년에 비해서 별 때문에 도덕 판단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도덕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초를 두고 있는 이론들과 측정 방법에 대한 고찰과 재조명이 최근 관심을 끌고 있다. Kurdek(1978)은 문헌 조사를 통해서 아동의 도덕 발달의 인지적 기초로서 조망 수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도덕과 조망 수용을 다차원적 구인으로 고려해야 할 것과, 이러한 구인들이 신뢰롭고 생태학적으로 유효하게 측정될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해 낸 바 있다.

Thoma와 Rest(1999)는 중학생 260명, 고등학생 257명, 대학생 234명, 그리고 대학원생 268명(총 1017명)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덕적 발달단계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도덕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타협적인 경우에는 도덕적 판단에 의존했으나 변화할 때는 도덕적 정보에 의존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발달단계와 교육정도에 따라서 증가했다. Thoma와 Rest는 사회적 도덕성의 발달은 Kohlberg의 도덕단계와 일치하지 않은 것 같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상에서 개관된 바와 같이, 1990년에 들어와서 아동, 청년, 성인을 대상으로 도덕성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여 사회적 도덕의 준거로서 정직과 친절에 관한 연구들과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론이 제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는 김상운

(1999)이 인지발달이론과 영역구분이론에 의해서 수행된 한국인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들을 개관해 놓았다. 그러나 정직과 친절을 준거로 한 사회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는 김경희(1999)에 의해 처음으로 수행되었는데, 이 연구는 사회적 도덕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의 성질을 갖는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남녀300명과 대학생 231명을 대상으로 하여 2개의 이야기를 사용한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사회적 도덕성의 준거로서의 정직과 친절에서 유의한 학년차와 성차가 보고되었다. 즉 개인적 사태에서는 정직을, 사회적 사태에서는 친절을 갈등해결방법으로 사용했는데 정직의 정도와 친절의 정도는 학년에 따라 증가하였다. 그리고 성별로 보아 개인적 사태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정직을, 사회적 사태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친절을 갈등해결방법으로 사용했다. 사회적 도덕성에 관한 김경희(1999)의 후속연구에서는 중학교 1, 2, 3학년 남녀 217명과 고등학교 1, 2학년 153명(총 37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도덕성의 준거로서의 정직과 친절에서 학년차와 성차가 나타났다.

이 두 연구(1999, 2000)에서 사용된 도구는 사회적 관계에서의 문제 상황인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이야기들은 Lamborn, Fischer와 Pipp(1994)가 제작했던 내용에 근거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이야기들은 갈등 사태에서 판단을 요구하고, 그 판단의 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유를 대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야기 1>은 두 친구가 모두 나쁜 점수를 받았는데, 한 친구는 다른 친구에게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친구는 나쁜 점수를 받았다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 1>은 자신이 개입된 개인적 사태이다. <이야기 2>는 한 아동이 그린 그림을 친한 두 친구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그렸는지 물어 보았는데, 한 친구는 생각과는 달리 잘 그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친구는 자기 생각대로 잘 못그렸다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 2>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사태이다.

<이야기 1>과 <이야기 2>에 대해서 각각 피험자에게 자신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하겠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이야기 할 것인가의 의도를 물어 대답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덧붙여 사회적 거짓말(social lie: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물었다. 두 개의 이야기에 응답한 판단과 동기를 내용 분석하여 4개의 단계로 범주화하여 다음과 같이 명명하였다. 이 범주화는 Lamborn과 그의 동료들의 범주화에 따르지 않고 연구자가 범주화한 것이다. 다음 4가지 단계의 순서는 위계적이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자세한 것은 발달심리학회지(1999, 2000).Vol.12,Vol.13을 참고할 것).

- 1단계(구체적 정직) : 정직은 절대적 권위나 별 지향적인 것
- 2단계(사회적 정직) : 정직은 권위나 별 지향적 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관계도 고려하는 것
- 3단계(구체적 관계 개념) : 타인과의 상호관계에서 타인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친절의 표시로,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보호와 자기방어를 위해서 정직함을 포기하고 사회적 거짓말을 하는 것.
- 4단계(사회적 관계 개념) : 타인과의 상호관계에서 자기와 타인의 마음을 보호할 뿐 아니라, 타인과 자기의 발전과 복지를 위해서 정직을 포기하고 사회적 거짓말을 하는 것.

김경희의 두 연구(1999, 2000)에서 아동, 청소년 및 청년의 사회적 도덕성 수준과 특성을 발달적 측면과 성차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전의 다른 학자들의 연구에서는 정직과 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의도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나 김경희의 연구에서는 정직과 친절의 구체적 개념과 사회적 개념의 발달경향을 분석했다.

대인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자

들은 문제 해결과 이해를 함께 다루었는데 비해서, 김경희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딜레마의 판단을 개인적 사태와 타인과의 관계 사태로 나누어 다루었다(Eisenberg-Berg, 1979 ; Hoffman, 1970; Kohlberg 1976 ; Piaget 1932; Selman, 1980). Gibbs(1991)의 개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김경희의 연구에서 사용한 개인적 사태(이야기 1)는 Kohlberg의 이론에, 사회적 사태(이야기 2)는 Hoffman의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개인적 사태와 사회적 사태에서 도덕 판단의 준거로서 정직과 친절 개념은 학년차와 성차를 보였다. 정직 요인은 개인적 사태에서, 친절 요인은 사회적 상호작용 사태에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과 친절이 “구체적”인 것에서 “사회적”인 것으로 변해 가는 김경희(1999, 2000)의 연구 결과는 Eisenberg-Berg(1979), Fischer와 Lamborn(1989), Lamborn과 그의 동료들(1994), 그리고 Veney(1992)의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Bussey(1992)가 지적한 대로 아동은 도덕 판단의 기초로 벌에 의존하다가 청소년기를 거쳐서 인지적 성숙과 사회적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내적 평가 반응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은 김경희 연구의 개인적 사태에서 나타난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즉 개인적 사태에서 정직의 빈도가 높았던 김경희의 연구의 결과는 거짓말을 정직보다 나쁘게 판단한다는 Bussey의 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인지이론(Bandura, 1986)에서 가정하는 자기-조절 발달과도 일치되는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적 사태에서 나타난 사실과 거짓에 대한 자기-평가적 반응은 Peterson과 그의 동료들(1983)의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며, 이는 Moshman(1995)이 제안한 도덕적 합리성의 수준 2(아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사태에서 사회적 관계와 내면화된 관계로서 정직을 포기하고 친절로서 거짓말을 선택한 판단(3, 4단계)은 Eisenberg-Berg(1979)와 Berndt(1991)의 결과와 일치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친사회적인 대인관계 사태에서 딜레마를 해결하는데 정직과 친절을 어떻게 관련시키나를 다룬 결과는 친사

회적 해결(친절)을 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러한 김경희의 연구의 결과는 비사회적 인지와 사회적 인지간, 그리고 사회적 인지와 사회적 경쟁간의 연결은 친사회적 사태에서 대단히 명확하다는 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다(Fischer, 1980; Ford, 1980; Kurdek, 1978; Pellegrini, 1985).

김경희의 연구에서 나타난 정직과 친절의 결과는 Haan(1978)이 시사한 바와 같이, 대인 관계적 도덕성은 형식적 도덕성 측면에서 보면 지체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김경희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2학년생의 거짓말의 필요성 빈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Thoma와 Rest(1999)의 주장으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다.

더 나아가서 흥미있는 것은 아동, 청소년 및 청년의 정직과 거짓말 경향(김경희, 1999)이 도덕적 발달단계 특징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친구와 같은 대인사태에서는 갈등해결 판단이 도덕적인 것과 무관하다는 Berkowitz와 Keller(1994), Damon과 Hart(1988), 그리고 사회적 도덕발달은 Kohlberg의 도덕단계와 같지 않다는 Thoma와 Rest(1999)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거짓말은 도덕의 발달단계이론으로 설명되는 속성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과는 Eisenberg-Berg(1979)의 친사회적 추론의 도덕적 범주나 Eisenberg(1986)의 친사회적 추론수준, Turiel(1983)의 사회 인습적 추론단계로 동일시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아동, 청소년, 및 청년에서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절하며 사회적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 김경희의 연구결과는 미국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도덕적으로 덜 성숙하다는, 곧 Kohlberg의 사회적 상동형인 3단계(good-boy/girl orientation)에 고착되어 있다고 한 Haan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김경희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서 친절하며 거짓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현상을 형식적 도덕성의 지체라고 보기보다는 Turiel(1975)의 사회적 인습(social convention)의 명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희의 두 연구의 결과는 개인적 딜레마 사태에서는 Kohlberg의 도덕판단 단계이론으로, 그리고 사회적 딜레마 사태에서는 Hoffman의 사회적 인습단계이론으로 더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동시에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사회적 거짓말을 사회적 기능을 갖는 도덕적 파라다임으로 제안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적 도덕성의 실체를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시도된 문헌연구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적 도덕성에 관한 이론과 연구를 인지적 측면과, 사회인지적 측면에서 개관하였다.

특히 한국 아동, 청소년 및 청년들은 갈등사태를 해결할 때 개인적 사태에서는 정직을, 사회적 사태에서는 친절 곧 거짓말을 갈등해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는 Kohlberg식의 형식적 도덕성 수준에서 보면 발달적으로 지체된 수준인 인습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개인적 사태와 사회적 사태에서 정직과 친절로 나타난 사회적 도덕성은 도덕의 합리성, 형식성이란 차원에서 상반되는 속성을 가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동시에 “도덕”이 어원적으로나 근원적으로 “논리”가 아니라 “인습”에 근거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사료된다. 이러한 유추에 근거하면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친절”의 표현으로서의 사회적 거짓말의 개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라 제안하고 싶다. Gilligan(1993)이 시사한 바와 같이 이를 타인배려의 도덕성이란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추후연구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성별로 보아서 한국 아동, 청소년, 청년들은 개인적 사태에서 여자 피험자들은 남자 피험자보다 거짓말을 갈등해결로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거짓말의 필요성도 더 강하게 나타내었다. 이러한 성차 현상은 Hoffman이 주장한 바, 부모의 훈육방식과 우리 나라의 유교적 관념의 유산인 “남아선호사상”과 같은 인습의 맥락에서 앞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Gilligan(1977, 1982)이 주장한 바와 같이, Kohlberg의 이론이 남성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얻어진 자료를 기초로 구축되었다는 비판을 하는 가운데,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도덕적 지향(예: 타인 배려도덕성)을 제안한 점도 연구과제로 고려해 볼 수 있다. Gilligan은 남성은 도덕적 갈등을 법과 정의에 의해서, 여자는 애정적이고 공감적이며 남을 배려하도록 교육을 받기 때문에 도덕성을 법적 수준에서 뿐 아니라, 타인의 복지, 배려에 대한 책임감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는 Hoffman의 주장과 유사하지만 사회적 도덕성을 연구할 때 다시 한번 유의해야 할 주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경희(1976). 한국 아동의 도덕관 발달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11, 9-25.
- 김경희(1997). 한국 아동의 정서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발달*, 10(1), 43-56
- 김경희(1999). 아동과 청년의 사회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정직과 친절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발달*, 12(1)m 14-24.
- 김경희(2000). 청소년의 사회적 도덕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발달*, 13(1), 81-93.
- 김상윤(1999). 인지발달이론과 영역구분이론에 의한 한국인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학회 제6회 심포지움*, 47-71.
- Alexander, R. D. (1987). *The biology of moral systems*. New York: Aldine de Gruyter.
- Berndt, T. J.(1987). The distinctive feature of conversations between friends; Theories, Reach, and implications for sociomoral development. In : W. M. Kurtines, & J. L. Gewirtz.(Eds.), *Moral development through social interaction*. New York: Wiley & Sons.
- Berndt, T. J., & Berndt, E. G.(1975). Children's use of motive and intentionality in person perception and moral judgement. *Child Development*, 46, 904-912.
- Bok, S. (1978). *Lying: Moral choices in public and private life*. New York: Pantheon.
- Case, R. (1985). *Intellectual development: Birth to adulthood*. New York: Academic Press.
- Chapman, M., & Lindenberg, U. (1989). Concrete operations and attentional capacity.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47, 236-258.
- Colby, A., Kohlberg, L., Gibbs, J. C., & Lieberman, M. (1983). *A longitudinal study of moral judgment*.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48(1-2, Serial N. 200).
- Damon, W. (1977).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San Francisco: Jossey-Bass.
- Dewey, J., & Tufts, J. H. (1908). *Ethics*. New York: Holt.
- Doise, W., & Mugny, G. (1984). *The social development of the intellect*(A. St. James-Emler & N. Emler, Trans.). Oxford: Pergamon Press.
- Edwards, C. P. (1975). Social complexity and moral development: A Kenyon study. *Ethos*, 3, 505-527.
- Edwards, C. P. (1982). Moral development in comparative cultural perspective. In D. A. Wagner & H. Stevenson(Eds.), *Cultural perspectives on child development*(pp. 248-279). San Francisco: W. H. Freeman.
- Eisenberg, N. (1982). The development of reasoning regarding prosocial behavior. In N. Eisenberg(E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pp. 219-249). New York: Academic Press.
- Eisenberg, N.(1986). *Altruistic emotion, cognition and Behavior*. Hildale, NJ: Lawrence Erlbaum.
- Eisenberg-Berg, N.(1979). Development of Children's prosocial moral judg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 15, 128-137.
- Eisenberg, N., Boehnke, K., Silbereisen, R. K., & Schuler, H. (1985). The development of behavior and cognition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6, 69-82.
- Flavell, J. H. (1985). *Cognitive development*(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Gibbs, J. C. (1977). Kohlberg's stages of moral judgment: A constructive critique. *Harvard Educational Review*, 47, 43-61.
- Gibbs, J. C. (1979). Kohlberg's moral stage theory: A Piagetian revision. *Human Development*, 22, 89-112.
- Gibbs, J. C., Clark, P. M., Joseph, J. A., Green, J. L., Goodrick, T. S., & Makowski, D. G. (1986). Relations between moral judgment, moral courage, and field independence. *Child Development*, 57, 185-191.
- Gibbs, J. C. (1991). Toward an Integration of Kohlberg's and Hoffman's Theories of Morality. In W. M. Kurtines & J. L. Gewirtz(Eds.), *Handbook of moral behavior and development*(Vol.1, pp. 183-222). NJ: Lawrence Erlbaum.
- Gilligan, C.(1977). In a different voice: Women's conception of self and moral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47, 481-517.
-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 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ueneich, R. (1982).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integration rules of making moral judgments. *Child development*, 53, 887-894.
- Harter, S. (1983). Developmental perspectives on the self-system. In J. H. Flavell & E. M. Markman(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4th ed., Vol. 3, pp. 275-386). New York: Wiley.
- Hoffman, M. L. (1970a). Conscience, personality, and socialization techniques. *Human Development*, 13, 90-126.
- Hoffman, M. L. (1970b). Moral development. In P. H. Mussen (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Vol. 2, 3rd ed., pp. 261-359). New York: Wiley.
- Hoffman, M. L. (1975). Developmental synthesis of affect and cogni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altruistic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1, 607-622.
- Hoffman, M. L. (1981). Is altruism part of human na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121-137.
- Hoffman, M. L. (1988). Moral development. In M. H. Bornstein & M. L. Lamb(Eds.), *Developmental Psychology: An advanced textbook*(2nd ed., pp. 205-260).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offman, M. L., & Saltzstein, H. D.(1967). Parental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 45-57.
- Kant, I.(1785).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Vorländer.
- Kaplan, M. F. (1989). Information integration in moral reasoning: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mplications. In N. Eisenberg, J. Reykowski, & E. Staub (Eds.), *Social and moral values: Individual and societal perspectives* (pp. 117-13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easey, C. B. (1977). Children's developing awareness and usage of intentionality and motives. In H. E. Howe & C. B. Keasey (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 25).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Kohlberg, L. (1966). A cognitive-developmental analysis of children's sex-role concepts and attitudes. In E. Maccoby (Ed.), *The development of sex differences*.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Kohlberg, L. (1971). From *Is* to *Ought*: How to commit to naturalistic fallacy and get away with it in the study of moral development. In T. Mischel (Ed.), *Cognitive development and epistem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Kohlberg, L. (1984).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Essays on moral development* (Vol. 2). San Francisco: Harper & Row.
- Kohlberg, L., & Higgins, A. (1987). School democracy and social interaction. In W. M. Kurtines & J. L. Gewirtz (Eds.), *Moral development through social interaction* (pp. 102-103). New York: Wiley.
- Kohlberg, L., & Kramer, R. (1969).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childhood and adult moral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2, 93-120.
- Leahy, R. L. (1983). The child's construction of social inequality: Conclusions. In R. L. Leahy (Ed.), *The child's construction of social inequality* (pp. 311-328). New York: Academic Press.
- Loevinger, J., & Wessler, R. (1970). *Measuring ego development I. Construction and use of a sentence completion test*. San Francisco, Jossey-Bass.
- Losco, J. (1986). Understanding altruism: A critique and proposal for integrating various approaches. *Political Psychology*, 7, 323-348.
- Maccoby, E. E. (1980). *Social development: Psychosocial growth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McDougall, W. (1908). *An introduction to social psychology*. London: Methuen.
- Miller, P. H., & Aloise, P. A. (1989).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the psychological causes of behavior: A review. *Child Development*, 60, 257-285.
- Miller, S. A. (1986). Certainty and necessity in the understanding of Piagetian concep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3-18.
- Montemayor, R., & Eisen, M. (1977). The development of self-conception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13, 314-319.
- Murray, F. B. (1983). Learning and development through social interaction and conflict: A challenge to social learning theory. In L. S. Liben (Ed.), *Piaget and the Foundations of Knowledge* (pp. 231-24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Newman, D. (1986). The role of mutual knowledge in the development of perspective taking. *Developmental Review*, 6, 122-145.
- Nunner-Winkler, G., & Sodian, B. (1988). Children's understanding of moral emotions. *Child Development*, 59, 1323-1328.
- Page, R. A. (1981). Longitudinal evidence for the sequentiality of Kohlberg's stages of moral judgment in adolescent male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9, 3-9.
- Pascual-Leone, J. (1970). A mathematical model for the transition rule in Piaget's developmental stages. *Acta Psychologica*, 32, 301-345.
- Pascual-Leone, J. (1987). Organismic processes for Neo-Piagetian theories: A dialectical causal account of cognitive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2, 531-570.
- Peterson, C. C., Peterson, J. L., & Seeto, D. (1983). Developmental changes in ideas about lying. *Child Development*, 54, 1529-1535.
- Piaget, J. (1965). *Moral judgment of the child* (M. Gabain, Trans.). New York: Free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32)
- Selman, R. L. (1980). *The growth of interpers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es*. New York: Academic Press.
- Snarey, J. (1985). The cross-cultural universality of social-moral development. A critical review of Kohlbergian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97,

- 202-232.
- Spiro, M. (1957). Culture and personality: The natural history of a false dichotomy. *Psychiatry*, 14, 19-46.
-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iel, E. (1989). Domain-specific social judgments and domain ambiguities. *Merrill-Palmer Quarterly*, 35, 89-114.
- Walker, L. J. (1988). A longitudinal study of moral reasoning. *Child Development*, 60, 157-166.
- Whiteford, M. G., & Gibbs, J. C. (1991, June). *Relations between social role-taking opportunities and moral judgment development during colleg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Jean Piaget Society, Philadelphia.
- Youniss, J. (1980). *Parents and peers in social development: A Sullivan-Piaget perspectiv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ocial lie as a sociomoral paradig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Maria kyungHee Kim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nature of children's and adolescents' social lie as a criterion of sociomorality.

At this study, the Kohlberg's and Hoffmans's theories of morality, the neo- Kohlbergian or revisionist view and an integration of these theories were reviewed and discussed.

In particular, theories and researches on social lie were discussed in a view of cognitive- and socio-cognitive aspects. Further research was also suggested.